

통합화(Integration)을 위한 제안

통합화는 安定養鷄 위한 종합 처방

윤 호 직

(건국대학교 축산대학교수)

I. 머리말

우리나라의 양계업계는 지난 연말부터 다시 불황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양계인은 이 불황이 곧 회복되리라는 과거와 같은 수동적이며 안일한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 불황이 오늘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을 짚게 나타내자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양계인은 과거와 같은 안일한 방법으로 불황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능동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불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보다 안정된 기반위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리하여 최근 우리의 주변에서 양계업을 안정화시키며 보다 건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합적 생산체제(Integration)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리하여 본 논고에서는 1930년대 세계공황이래 미국에서 도입하여 미국의양계를 크

게 발전시킨 통합화(Integration)가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우리나라 양계업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화해야 하며 누가 통합화의 주체(Integrator)가 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여 양계업의 통합화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코저 한다.

II. 통합화(Integration)의 이점

양계업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기능별 부문을 보면 병아리, 사료, 약품등 생산자재를 공급하는 부문과 이 자재를 이용하여 계육과 계란을 생산하는 부문, 생산된 계육과 계란을 가공하는 부문, 그리고 이를 유통하는 부문이 있다.

그런데 이들 각 부문이 제각기 독립적 경영조직을 갖게될 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서게되는 것은 자재를 이용하여 계육과 계란을 생산하는 부문을 담당하는 사육자이다.

왜냐하면 사육자만이 완전경쟁의 시장에서

판매과점 및 구매과점의 입장에 있는 부화, 사료, 도계부문과 맞서 거래를 해야 하므로 거래교섭력이 자연 약화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는 이들 각 부문이 각기 독립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차 부문간에 이윤추구가 심하게 됨으로써 전체의 능률을 높이는 데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들 부문중 생산자재를 공급하는 부문이 그들의 이윤을 크게 하기 위해 생산자재의 가격을 인상하면 양계산물을 생산하는 부문인 생산자의 생산위축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곧 생산자재공급부문의 판매감소 및 유통부문의 처리물량감소를 가져와 양계업의 각 부문 뿐만 아니라 양계업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안정없이는 각 부문이 존립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각 부문의 독자적 이윤추구에 앞서 생산자의 이윤보장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생산자 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는 어느 부문의 주도하에 생산안정을 이루면 생산의 증가를 가져와 자체부문의 사업확대는 물론 양계업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계업의 통합은 생산자를 둘러 싸고 있는 부화업자, 사료업자, 도계업자, 유통업자가 주체가 되어, 이들 기능별 부문간에 결합하는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과 부문내에서의 결합 예를 들면 부화장과 부화장이 서로 결합하는 수평결합(Horizontal Integration)을 말한다.

그러므로 통합화란 각부문을 전체로 묶어 버리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합적 생산체제는 생산부문과 가공 및 유통부문을 직결시키므로 생산과잉으로 인한 생산물의 체화를 방지하는 물론 생산조절을 가

능케하여 생산자에게 이윤을 보장시켜 줌으로서 생산의 안정을 가져오고 계절적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최선의 사양, 관리, 육종의 기술을 도입, 이용함으로써 생산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통합화는 양계산물의 수집, 운반, 가공을 대규모화 하므로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나아가 품질 좋은 양계산물의 생산을 가능케 한다.

특히 이는 유통을 조직화하고 적정가격으로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비축과 가공으로 제품을 다양화시켜 소비의 촉진을 가져오는 등 그 의의는 자못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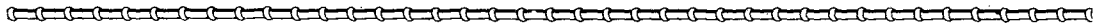
이와 같이 통합화는 생산→가공→유통→소비의 모든 분야를 하나의 흐름으로 결속시켜 각 부문간에 효율성을 최대화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양계업을 건전한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이와 같은 통합적 생산체제하에서 가공업자(도계업자)는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교량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제품의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정량을 계약생산하므로서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제품의 개발과 선전으로 생산물의 소비를 더욱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Ⅲ. 통합화의 전제와 그 방법

1. 통합화의 전제

통합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바 이 조건으로서 먼저 생산규모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반면 생산지역이 집중되어야 하며, 또한 가공(도계) 시설도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브로일러의 통합화가 발전하게 된 근본적 동기는 바로 생산규모의 대형화와 일



부지역에로의 생산과 가공시설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이래 미국의 브로일러는 그의 생산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일부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30년 이전에는 미국의 전역에 걸쳐 브로일러가 사육되었으나 1930년 이후부터 동부 및 동남부의 10개주에서 대규모로 집단생산 되었다. 또한 생산 규모에 있어서도 10만수 이상 생산하는 농장수가 60%에 달하며 이의 80% 이상이 동남부 9개주에 집중되고 이 집단 생산지에 위치한 20개의 근대시설을 갖춘 도계장이 전국 생산량의 60%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에 있어서는 생산규모가 대형화하고 생산지역 및 도계시설이 집중되므로서 브로일러의 통합적 생산체제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었으며 이 결과 오늘날에 있어서는 브로일러 생산량의 91%가 통합화의 체제하에서 계약생산되고 있으며 8%가 통합화의 주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1%만이 우리나라 처럼 개별생산하고 있다.

또한 통합화의 선결요건으로서 생산기술이 발달되고 균질의 브로일러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철저한 위생검사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이로 인하여 소비량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은 양계업의 통합화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규모의 근대화된 도계장과 계란선별포장센터가 양계단지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계업의 연관기업이 독자적으로 도계장이나 계란선별포장센터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도계시설을 확장토록하거나 농축협을 통하여 가공시설을 주산지에 신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공 처리된 생산물을 판매하고 유통망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도계 및 계란 선별시설의 확장과 병행하여 현재 유보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강화하여 현재 시

장내에 산재하고 있는 도산매상(생계상인)의 재래식 도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 하여금 도계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하며 계약생산하는 양계업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도 계약한 물량을 공급토록 노력하여 상호신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제조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통합적 생산체제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우리나라의 양계업은 다른 어느 축산부문보다 생산규모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생산지역도 수개의 대도시근교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통합화의 가능성은 짙다고 볼 수 있다.

2. 통합화의 방법

통합화의 방법은 통합화의 주체가 계약사육자에게 자금지원과 기술지도만을 해주는 단순한 계약조건에서 부터 사육자에게 급료만을 지불할 정도로 깊이 경영에 개입하는 유형의 계약조건까지 있다.

그러나 대개 통합화의 주체는 병아리 사료약품등 생산자재의 공급과 동시에 생산 및 경영지도를 하며 생산된 생산물의 판매를 책임지는 한편 계약사육자는 계사등 생산시설과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요 통합화의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이윤분배형을 들 수 있다. 이는 부분적 통합방식으로 통합화의 주체가 사육자에게 공급한 생산자재는 깃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경영과 판매는 상호협의하에 하되 생산물의 가격에 있어 시장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라 배분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공동부담하는 형태의 생산양식이다.

둘째 정액보장형을 들 수 있다. 이는 사육

자가 시설과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생산자재는 모두 통합주체가 조달하며 경영지도와 판매까지 담당할 뿐만 아니라 손실도 모두 주체가 책임진다. 그러므로 사육자는 통합화 주체의 모든 지침에 따라야 하며 사육자에 대한 반대급부는 경영의 결과에 관계없이 마리당 얼마라는 할당액과 정해진 조건하의 일정한 「보너스」를 보장 받는 양식이다.

셋째의 유형은 능률급형이다. 이는 정액보장형과 생산, 판매 위험부담방법은 모두 같으나 사육자에 대한 이익분배방식이 전혀 다르다. 즉 이 유형은 생산기술의 결과인 사료효율에 일정율의 이익과 「보너스」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고정급형을 들 수 있다. 이는 통합화의 극단적인 발전유형으로 정액보장형 및 능률급형보다 통합화의 주체가 생산내부에 적극 참여하여 사육자의 이익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통합화의 주체가 생산시설까지 공급할 때가 있으며, 주급 또는 월급으로 사육자에게 지불하므로 사육자의 이익을 가장 잘 안정시켜 주는 유형으로 현재 각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상 통합화의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어느 유형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여건에 따라 각각 상이할 뿐이다.

IV. 통합화를 위한 제안

우리나라 양계업은 그간 생산자의 자율적인 생산조절기구 즉 미국의 에그보드(Egg-Board)나 브로일러 카운설(Broiler Council)과 같은 생산조절을 위한 기구와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년도별로 호황과 불황이 계기적 변동을 되풀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격진폭이 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양계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는 제도적으로 생산과잉을 방지하며 수급의 균형을 유지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론적인 귀결에서 볼 때 통합적 생산체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며 통합화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통합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통합화의 현실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도 없으므로 여기에 그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무엇보다 통합화 과정에서 누가 통합화의 주체(Integrator)가 되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화 할 것인가에 통합화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통합화의 주체와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통합화의 주체가 식품가공자본가나 사료자본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식품가공자본가가 통합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겠는가? 여기에는 재고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왜냐하면 해방후 제분(製粉)

제당(製糖) 제직(製織) 등 식품가공자본가가 우리나라 농업생산자를 위하여 노력했던 것을 생각할 때 결코 이들은 통합화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만약 그들이 통합화의 주체가 되었을 때 무자비한 이윤추구는 양계생산농가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양계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통합화의 주체는 현재 양계업과 연관을 가지고 도계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본가나 중계장이나 사료공장이나 부화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본가나 또는 경제사업을 하여 착실한 경영을 하는 축협 또는 농협이 가장 바람직한 통합화의 주체이다.

이들이 통합화의 주체가 될 때 일반 식품가공자본가들처럼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계농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보완관계를 가지는 사육농가를 보호 육성하기 때문에 이들이 통

합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통합화의 주체가 되었을 때 생산자와 계약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할 때 사육자가 시설과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사료 병아리 약품등 생산 자재는 통합화의 주체가 조달하며 경영지도 및 생산물관매와 위험까지도 이들 주체가 부담하며 사육자는 마리당 일정한 활당액을 보장 받는 정액보장형(定額補障型)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통합적생산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지정한 일차 고시지역인 서울 부산 성남 광주 대구 전주 대전중 생계유통이 금지된 지역이어야 하며 이중에서도 토계품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과 전주지방을 선정하여 일차적으로 이를 실시하여 보완조치가 이루어지고난후 이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아직도 통합화에 있어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규모도계장이 설치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통합화의 주체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규모 도계장 및 계란선별공장을 신설하고 이들이 소유한 기존시설 확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축산진흥기금에서 적극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도계장과 계란선별공장의 신설 및 기존시설의 확장은 양계단지인 생산 지역에 우선 지원토록하여 통합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유통효율을 증대토록 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통합화는 생산농가와 통합주체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계약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육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양계법에 연관된 모든 주체가 통합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야만 우리가 바라는 소망스러운 통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더우기 통합화의 과정에는 막대한 시설과 자금이 필요하므로 통합화의 주체는 물론 정부가 여기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위에서 통합화의 주체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 누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화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이 통합화 과정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가를 언급하였으나 앞으로 설치 운영될 통합화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1, 2와 같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 집행위원회는정부, 사육자, 유통업자, 통합주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집행하는 현실적 집행기구이다.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업무는 수직통합이나 수평통합의 경우 서로 분리되어 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여 그들의 최종목표인 가격 안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평통합의 경우 부화장만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종계장 상호간 또는 도계장 상호간 사료공장 상호간에 결합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각 부문별로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상호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화는 수평 결합과 수직결합을 말하며 특히 수직 결합이 경제적 의의가 크기 때문에 수직통합만을 통합화라고 일컫는 예가 많다.

V. 맺 는 말

이상 통합화의 내용과 방법 및 그의 경제적 이점과 통합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언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양계업에 통합적 생산체제를 도입하는데 제기될 문제점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화의 방안을 제시하였

그림 1. 수직(종적)통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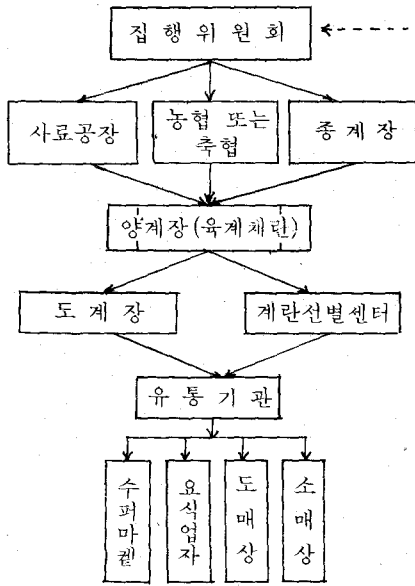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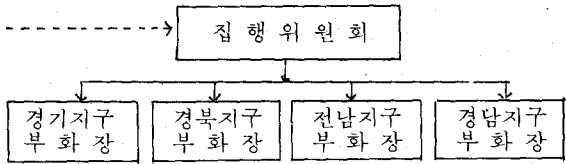


그림 2. 수평(횡적) 통합방안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간 우리나라의 양계업은 수급의 불안정과 가격의 진폭이 심하 사육자는 양계업을 하나의 투기업으로 여겨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가격의 안정과 수급의 조절장치가 없는 한 양계업은 투기화 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생산기반에서는 양계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앞으로 증산될 육계 및 계란을 적정가격으로 최종 소비자의 수요에 적응시키는 반면 최소의 비용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생산농가에 유리한 수취가격을 보장하여 증산을 위한 유인(誘引)을 계속적으로 제공케하는 통합적 생산체제가 도입되어 앞으로 양계업이 안정된 생산기반 위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때 통합화의 과정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임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합화의 주체선정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야기 될

마찰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양계업에 연관된 종계업자 부화업자 사료업자 유통업자도 과거와 같이 자기들의 이윤추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연관기업들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발전속에 자기들의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바른 자세를 확립하여 통합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통합화는 성공할 수 있으며 양계업의 성공적인 통합화는 비단 양계부문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 전반에 파급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양계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는 종합적인 처방이 바로 통합적 생산체제임을 통감하여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양계업 뿐만 아니라 전체 축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통합화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